

2016 봄호
www.jungtoh.org

정토마을

Healing is Loving
사랑이 곧 치유입니다



수행과 돌봄이 하나된
정토마을 행복공동체



정토마을공동체 2~5월 행사일정

정토마을법인사무국

- 21일 장좌기도 : 2.2 ~ 2.22
- 언양 염불선수행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 법화산림 고승초청 천일기도 : 매월 넷째 주 일요일(2.28, 3.27, 4.24, 5.29)
- 스리랑카 성지순례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식(4박 6일) : 3.16~3.21
- 부처님 오신 날(진신사리 친견법회) : 5. 14. 토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 명상심리대학원 석사 봄 개강 : 3/4 금
- 명상상담전문가 봄 개강. 명상심리대학원 입학식 및 졸업식 : 3.5 토
- 명상심리대학원 파랑지역아동센터 명상수업 :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 울산청소년 팝·댄스경연대회 『꽃보다 10대』 : 5. 14. 토

마하보디교육원

- Soul Mother 프로그램 : 3.20, 4.17, 5.22
- 재단직원교육 『불교기본예절』 : 3. 24. 목
- 생사의장 운문사 특별교육 : 5.16~5.22
- 요양보호사교육 신규반 : 5.23~ 6.20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 환우생신잔치 : 매월 둘째 주 수요일(2.11, 3.9, 4.12, 5.11)
- 어버이날 『감사음악회』 : 5.8 일

차례



04	여는 글 생명이 춤추는 삼월 좋은날에...	22	파랑선생님의 편지 명상수업을 하고 나서
07	선지식초대 윤회에서 생노병사의 고통을 겪고 ...	24	42기 생사의 장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11	명상카툰 자신 바라보기	26	초청법회 내총라마와 함께한 3일간 이야기
12	자재병원 환우 이야기 힐링의 시간 속으로	32	십삼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부처님! 행복하게 조금 더 살고...
14	우리들 이야기 자재요양병원 인증을 마치고	34	청원이야기 이티재를 넘으면서
16	영적돌봄연구실 임상연구실 마음정원이야기	36	정토 카툰 내가 낸 후원금 이렇게 쓰이고 있었어요
19	시 한편 정토마을	37	후원자소식 Who? One!
20	힐링푸드레시피 조금은 특별한 동그랑땡 품은 깻잎조림	42	자원봉사봉사자 소식 및 모집
		44	정토마을 소식
		47	광고

정토마을
번호 통권 108호

발행처 (재)정토사관자재회 발행일 2016년 3월 10일 발행·편집의 능행 등록울산바01004 (2008. 4. 11)
 편집위원 민대식 임주는 사진 편집부 정토마을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052-255-8588)
 정토마을(청원)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17-1 (043-298-2258)
 마하보디교육원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052-255-8520)
 디자인 편집 맑은소리 맑은나라 (051-255-0263) 제작 (재)정토사관자재회 | 비매품

생명이 춤추는

삼월 좋은날에...



정토마을 자재병원 맑은 도랑에는 언 땅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삼월은 생명이 피어나는 계절, 생생육육生生育育자연의 위대한 덕을 배울
수 있는 삼월좋은날에 정토마을 후원가족이신 당신께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아름답고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재병원 돌레길을 걷다보니 작은 싹들이 생명의 고귀함을 알게 하면서 나의가슴에 자애와 연민의 씨앗들이 깨어나도록 일깨워주는군요.

북풍한설이 생명들에게 심을 주었다면 삼월부터 불어줄 惠風(혜풍)은 우리들의 가슴에서 사랑이 피어나도록 힘이 되어 줄 것 같습니다.

혜풍惠風이 만물을 어루만지듯, 우리들의 삶속에서도 서로 서로 고귀한 인연들과 더욱 가까이에서 봄바람 같은 가슴으로 삶을 살아낸다면 참 아름다운 삶이 되겠지요.

봄의 바람은 은혜롭고, 봄의 대지는 인자하십니다. 만물의 은혜와 인자함속에서 인간은 희망을 먹고 희망을 힘으로 삼으며, 그 희망으로 삶의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 삼월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목처럼 메말랐던 가지에 생명의 새싹이 돌아나는 것처럼...

얼어붙었던 땅에서 녹색의 새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

사랑으로 정토마음을 일구어 주시는 모든 이들의 삶에서 그리고 가슴에서 삼월의 환희가 충만하기를 기원 합니다.

작년 한해는 병원개원과 운영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한 다양한 경험들이 저로 하여금 참 많이도 삶의 활기찬 역동이 무기력함으로 사로잡히게 했던 한해이기도 하였지만, 이제 긴 우울의 잠에서 털고 일어나, 봄의 정령 사랑스러움도 배워 보려합니다. 나비를 만나서 걸림 없는 자유를 배우고 종달새의 사랑스러움도 배워 보려 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본질은 고통이 아니라 밝은 빛임을 알기에 하루가 멀게
이 세상에서 영 떠나가시는 님들의 뒷모습에서 빛을 봅니다.

춘면부각효(春眠不覺曉) : 새벽이 되는 것도 모르고 아침잠을 깨니

처처문제조(處處聞啼鳥) :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새소리

야래풍우성(夜來風雨聲) : 간밤에 비바람 소리 들리더니

화락지다소(花落知多少) : 아마 적지 않게 꽃이 떨어졌겠지.

하루의 시간은 일평생을 닳아 있습니다.

생명이 춤추는 삼월날 하루가 나의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기를 우리 모두
서원하면 참 좋겠습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하루를 준비하여 자재병원치유동산에 소풍오시기를 초
대하면서 정토마을 후원자이신 당신께 삼월의 환희를 담아 드립니다.

정토마을과 함께 걸어주시는 당신께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
서 앞으로 더욱 많은 날들을 정토마을과 함께 걸어주시기를 염원합니다.

| 제비꽃 피어나는 정토마을 치유동산 뜰에서 능행 합장 |

윤회에서 생노병사의

고혹를 겪고...

2015년 12월 23일 달라이 라마 존자님 람림 법회 중에서

우리는 행복만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을 그 습기마저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내가 사람의 몸을 받았기에 부처님의 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내가 듣고 생각 할 수 있는 사고력을 지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지 않는다면 언제 하게 될까요?

부처님의 법을 결코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몸으로 태어났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체와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일생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하는 너무 외딴 곳에 태어났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만나는 인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없는 사람,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불쌍하고 연민심 밖에 나지 않습니다. 내가 도로나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곳, 법을 들을 수 있는 곳에 태어났고 사부대중이 함께 모인 곳이라면 모든 법을 수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전부 충족시킨 것입니다. 이런 조건과 여건을 충족시킨 이 시점에서 자신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손실입니다.

그렇기에 그냥 무심코 3년 3개월간의 무문관이나 은둔의 동굴에 간다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공산당이 강요하는 것, 공산당이 생각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문관을 아무리 한다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사유가 없다면 많은 수행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량도資糧道와 가행도加行道의 행지에서 일아승지겁一阿僧祇劫을 쌓는다고 합니다. 또한 견도見道에서 이아승지겁二阿僧祇劫을 쌓고, 수도(修道)에서 청정한 8지八地, 부동지不動地에서부터 삼아승지겁三阿僧祇劫을 쌓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법을 만나 공부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많은 공덕자량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찰나에 한순간만의 보리심이나 연민심을 일으켰다할지라도 그것이 수많은 생 동안 짓는 공덕자량을 대신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을 위한 보살이라고 하는 분들은 바로 수많은 생 동안 중생을 위하여 수행하시는 분들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키시는 분들입니다. 목표로 하는 중생들이 무량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표는 무량하고, 마음을 내실 때에도 무량한 생 동안 마음을 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량하고 광대하다고 합니다.

‘보리심으로써 일체 중생을 위한 마음을 일으킬 때 어떻게 보살에게 스스로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마음이 있겠는가?’

‘보살이라 하는 분들은 무량한 중생을 위하여 발심하고 실천하여 중생들이 좀 더 행복과 안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떻게 게으르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낙심하고 좌절하며 이렇게 멈춰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스스로 기운을 북돋우면서 지금 윤회에서 생노병사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일체중지의 부처의 깨달음을 서원하고 그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가능한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만론]의 <보살의 서원>에서 "내가 바로 중생이 쉬는 그늘이 될 것이고 중생의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리심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공덕자량을 쉽게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짧은 순간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욕심이 크면 '부처의 깨달음은 원래 없는 것이다' 라는 자포자기의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보리심, 연민심, 공성의 지혜 중에서도 보리심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모든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인(因)이 되고 쉽게 쌓을 수 있는 그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나는 업을 짓는 것을 애취(愛取)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업을 짓고 업을 짓는데 있어서 그것을 심는 역할을 애취가 담당합니다.

이별하게 된다고 가정할 때, 자신의 육신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취(取)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러서 굉장히 뜨거운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또 지옥에 태어나는 업이 있는 사람 역시 뜨거운 감각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십이연기(十二緣起) 중에서 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많은 흑백업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업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업입니다. 업에 의해서 다음 생을 받게 되는데 만약 업들이 전부 비등하고 거의 균일하게 지어졌다고 하면 그 중에서도 가장 습이 많은 것이 다음 생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업들이 비등하지 않다면 이전에 지었던 것에 있어서 그 죽음의 순간 무엇이 거기에 촉진제 역할을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을 야기하는 시기는 죽음의 순간에 있어서 자신이 이전에 기억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기억하게끔 만드는 것 중에서 신심과 자비, 탐욕, 성냄, 선(善)과 불선(不善)의 법, 어떤 것일지라도 자신이 그때 무엇을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고요함과 평온함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거친 식(識)이 전부 차단되므로 미세한 죽음의 식(識)의 마음은 무기가 됩니다. 어떤 선도 불선도 아니므로 무엇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 시의 마음에 신심이 생겼다면 그러한 신심으로 인해서 선업을 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선한과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종 시에 마음에 선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 바라보기



힐링의 시간 속으로...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이라는 곳을 알게 된 것은 나의 아버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위하여 컴퓨터를 뒤적거리던 어느 날이었다. 많은 요양병원들의 이미지 사진들과는 사뭇 다르게 바라만보아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날 언니와 나는 부산에서 자재병원까지 한걸음에 달려와 상담하였고, 오빠와의 방문을 통해 아버지의 새 보금자리이자 아버지의 두 번째 여정을 격려하는 편안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미 다른 요양병원에서 8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낸 아버지는 많은 불편과 두려움을 안고 계셨지만, 좀 더 나은 환경과 편안한 안식처가 되리라는 자식들의 권유에 흔쾌히 응해 주셨고 2015년 8월 뜨거운 한여름부터 나의 힐링 또한 시작되었다.

새 보금자리에서의 아버지는 어떠하셨을까? 오래전부터 불교에 성심을 다하셨던 아버지에게 능행 스님과의 만남... 여러 스님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말씀들... 딱딱한 일상보단 친숙하고 가족처럼 다가와 주시는 간호사님들...

이 모든 분들의 관심과 애정을 아버지도 느끼시며 차츰차츰 안정과 여유를 찾기 시작하시는 듯하였다. 눈이 잘 안보이시기에 자재병원의 더 많은 아름다움을 만끽하지 못하시는 것이 딸로서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이다. 병원에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 병원 안에서의 포근함과 여유가 느껴지는 인테리어. 이리저리 열심히 아버지에게 설명해보지만...

많은 요양병원을 다녀보진 않았지만 늘 깔끔하고 포근함이 느껴지는 병실. 그 어느 병원에서도 느껴보지 못했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모든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환자분들의 식사를 도와주시고 말벗이 되어주시는 모습 또한 어느 병원에서도 볼 수 없는 진풍경이 아닐까싶다. 보호자들에게 어떠한 대가 없이 식사를 제공해주시는 것 또한 이곳에서만 가능한 것 같다.

난 이곳에 아버지를 뵈러오지만 사실은 집을 나서는 순간 나를 위한 힐링의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자재병원에 오면서 자연경관에 나의 눈이 힐링 되고, 병실에 들어서면서 이제 세상의 각박함과 경쟁, 치열함을 모두 떨치고 다시 어린아이마냥 순수함을 되찾은 환자분들을 마주하며 나의 머리를 힐링하며, 자재병원에 와서 무한한 불심과 환한 미소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며 나의 마음을 힐링한다.

아버지를 뵈러오면서 나의 일상이 조금 더 바빠졌고 조금 더 해야 할 일이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일상에서 느끼고 깨닫지 못했던 더 많은 것을 나는 자재병원에서 얻어간다.

아버지와 같은 병실을 쓰시던 분들 중 두 분이 부처님 곁으로 가셨다. 그 분들이 집중치료실로 옮기고 난 뒤 난 아버지 몰래 그분들을 찾아 갔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중에도 나의 손잡음에 반가워하셨고 그 손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잠시의 인연에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곳이 여기에 있었다. 아이들이 조금 더 크고 나면 나도 이곳에서 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을 하려 한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나는 나의 힐링의 여행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힐링이 되어주시는 선경스님께 감사드린다.

자재요양병원

인증을 마치고

6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친 인증을 마쳤다. 전 직원이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위해 퇴근도 미뤄가며 입이 부르토도록 열심히 준비했다. 결과가 만족스러워 그동안의 어려움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다. 고생한다며 마련해준 삼계탕과 피로회복제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서로 격려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오직 인증 하나를 위해 달려왔다. 간호부장은 농담 삼아 인증에 참여한 사람에게 자격증은 안주냐고 한다. 얼마나 힘들었나를 생각하게 하는 말이다. 병원은 4년마다 재 인증을 받아야한다. 처음 보다는 쉽겠지만 그래도 준비하려면 힘들 테니 인증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병원으로 옮겨다니면 짱이라고 하며 웃었다.

마지막 6월 한 달은 서울보다 울산에 있는 날이 더 많았다. 무리를 해서인지 가슴이 찢여 오는 듯한 통증에 잠을 깨기도 했다. 순간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도 때도 없이 체면불구하고 김 약사한테 물어댔다. 그녀는 껴어봐서 그 심정을 안다며 미안해하지 말고 궁금하면 언제든지 물어보란다. 자기는 대학병원에 근무하기 때문에 5명의 조사자에게 조사를 받았단다.

보리회에 아이를 들쳐 업고와 봉사하던 착하고 열성적인 약사답게, 배려심이 많은 그녀가 있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른다.

6월24일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 메르스가 나라 안을 시끄럽게 해서 인증이 미루어지면 어쩌나 걱정도 했었다. 울산은 메르스 청정지역이라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나는 눈총의 대상이었다. 원망 듣지 않으려고 기차나 버스를 타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 조심했다. 어찌되었든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병원로비에 도열하여 인증조사자를 박수로 맞이하고 각자 업무로 돌아갔다.

입구에서 손 소독을 하고 들어오는 3명의 조사자의 관상을 보았다. 웬만하면 넘어가는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기를 바라며... 그러나 그들은 어찌나 까다로운지 환상의 조합이었다. 나는 다음 날 조사자에게 약물관리에 대해 약국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었다.

날을 잡아 내과부장 가정의학과부장과 저녁식사를 하고 카페에서 같이 묻고 답하며 공부를 했다. 발표할 내용을 USB에 담아 호텔에서 컴퓨터를 보며 연습도 했다. 준비를 하긴 했지만 실수를 하면 어찌나 걱정이 앞섰다.

조사자들의 거쳐가 약국이 있는 지하에 마련되었다. 화장실도 가야하는데 마주칠까 봐 약국 안에서 감옥 살이를 했다. 점심은 공간에서 병원식구를 위해 마련해 준 김밥으로 대신했다. 누가 노크를 하여 긴장을 하고 보니 남자조사자가 약국 안을 들여다보고 간다. '휴우' 들어오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한숨을 돌렸다. 세 명의 조사자는 시설, 규정검토, 실태조사 등으로 나누어 조사를 한다고 한다.

퇴근 후 같은 호텔에 묵는 건 아닌 가해서 혹시 낯선 사람이 묵지 않았나 물어 보았다. 다행히 그들은 다른 곳에 묵은 모양이다. 인증을 위해 마련된 카톡방엔 조사자의 행선을 알리는 문자가 춤을 춘다. 우리 호텔엔 안 묵었음을 알려 주었다. 혹시나 잠이 안와 병원까지 산책삼아 오지 않으려나 걱정하고 있을 직원들이 안심하라고.

간호사출신의 조사관은 파워포인트로 준비된 설명을 듣고 약국에 준비된 서류를 검토했다. 어찌나 꼼꼼하던지 서류를 크로스 체크까지 했다. 약을 정해진 온도에서 잘 보관하기 위해 약국의 온도와 습도, 냉장고 안의 온도를 체크한다. 약사가 일주일에 2일만 근무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날은 다른 사람이 체크해야 한다. 약국은 통제구역이라 아무나 드나들 수도 없어 방

명록에 방문자와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간호부장과 같이 온 조사자는 병실을 보고 의문이 생기면 다시 오겠다고 하며 갔다.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하는 조사자를 어찌해야 하나.

약을 혼동하는 실수를 막기 위해 모양이 비슷하거나, 용량이 비슷하거나, 이름이 비슷한 약은 별도의 표시를 하여 보관한다. 특히 마약은 이중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에 보관하고 항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한다.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항정을 위해 냉장고에도 잠금장치를 하였다. 그리고 모든 약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그러나 PTP포장약과는 달리 통에 든 정제는 개봉한 날로부터 1년, 시럽제나 연고제는 3개월이다.

그래서 각 약마다 이름과 개봉일과 그에 따른 유효기간을 적은 라벨을 붙인다. 개봉일을 적는 것이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한통을 얼마동안 썼나를 알 수 있어 주 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인증을 받아보니 힘들고 귀찮기는 해도 병원의 질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정도마을자재요양병원은 작년 6월 요양병원 인증평가를 받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이 되었습니다. 의사, 간호사를 비롯하여 정도마을자재요양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협동과 전문성이 기반이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끝났음을 비롯한 자재병원가족 모두에게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임상연구실 마음정원이야기



/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영적돌봄가들과 자재요양 병원의 많은 직원분들의 지지와 관심 속에 시작된 임상연구실이 작년 12월 13일로 1주년을 맞이했다.

1년 동안 환우분들과 보호자, 정토마을 식구들 그리고 영적돌봄가인 워드팀들과 함께 한 시간들을 돌아보며...

2015년 1월 19일 호스피스 40기 교육생 임상실습

- 1월 31일 영적돌봄 연구실 워드팀 1차 모임(참여인원 10명)
- 3월 22일 영적돌봄 연구실 1차 소진예방 프로그램 진행
- 4월 5일 '나만의 꽃 발 가꾸기' 행사 진행
- 5월 17일 영적돌봄 연구실 워드팀 2차 모임(참여인원 10명)
- 8월 19일 생사의 장 41기 교육생 임상실습
- 8월 24일 워드(WITH) 2기 인턴 교육 · 실습 10회 봉사활동 시작



③ 나만의 꽃 발 가꾸기



④ 워드 2차 모임



① 워드 2기 임상실습 O.T



② 병실 미세먼지 청소

마하보디 교육원에서 주최하는 '생사의 장' 교육을 마친 41기 수료생 29명은 임상실습을 통해 영적돌봄가인 워드 2기 16명을 배출하며 임상활동을 동행하게 되었다.



① 식사수발



② 산책, 말벗



③ 프로그램 진행

힘들고 지친 여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돌봄 연구실에서는 작은 가족모임파티를 준비하게 되었다. 함께 걸어온 서로의 시간을 돌아보며 사랑과 추억을 나누게 되었고, 앞으로 함께 가는 여정에 힘이 되어드리는 시간이 되었다.



① 박ㅇㅇ 할머니 가족모임 2015.12.27

2015년도 부처님의 품으로 보내드린 49분의 환우분들을 가슴속에 그리며 임상연구실에서는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려합니다

정토마을, 사람도 꽃이다



햇살은 아침을 깨워 정토마을을 비춘다
여명이 벗어 놓은 환한 뜰
동백꽃 붉은 입술이 미소를 짓는다

생의 에너지가 감도는 나무들
생명은 더없이 귀하고 소중한 거라며
귀를 쫓긋 세우며 봄이 오는 소리를 엿듣고 있다

봄을 향한 나무들처럼
서로에게 기대며 힘을 주는 사람들
못내 안쓰러운 눈빛 거두어 주는 사람들
그대는, 저마다 맑은 향기를 채워 주려는
사랑의 꽃을 닮아갑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숨결 어린 터전
날마다 하늘은 청정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날들
스치는 바람 한결 따스하다

정토마을엔 사람도 꽃이 된다. 卍

- 2004. 문학세계 신인상 등단, 시집『곡선의 미소』
- 2015. 공저 『달을 지고 가는 사람』 『눈 내리는 날』 외 다수
- 울산문인협회 회원, 울산시인협회 회원

| 우리네 삶과 가까이 있는 채소, 깻잎 |

조금은 특별한 동그랑땡 품은 깻잎조림

조리사_ “깻잎 남은게 조금 있는데 깻잎동그랑땡 한번 나갈까?”

영양사_ “깻잎동그랑땡? 깻잎전 말씀하시는거예요?”

조리사_ “아니, 깻잎안에 속을 넣고 동그랑게 만들어서 즐기면 돼”

영양사_ “이잉? 그게뭐지? 한번 만들어줘요”

조리사_ “우리 애들 어릴때 도시락반찬으로 자주 해줬어,만들어볼께 괜찮을 거야”

이렇게 알게 된 레시피 하나, 정토마을표 동그랑땡 품은 깻잎조림

여름에 먹어야 제 맛인 깻잎이지만 독특한 향으로 식욕을 증진시키며 철분의 왕이라 불리는 깻잎을 추운겨울에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섭취 할 수 있는 레시피 하나 소개합니다.

깻잎에는 암의 원인이 되는 아질산염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철분 성분이 많습니다. 깻잎 30g이라면 일일 철분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어서 빈혈에 좋고 뼈의 밀도가 떨어져 생기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개선시킵니다. 알싸하면서도 코끝을 맴도는 향 덕분에 식욕을 증진시키며 이 향은 정유 성분으로 방부제 역할을 하여 식중독에 걸릴 위험을 줄여 줍니다.

또한 깻잎에는 항산화작용을 하고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베타카로틴이 다량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말초혈관을 강화해주어 신경통에도 좋습니다. ✕



정토마을표 동그랑땡 품은 깻잎조림 만드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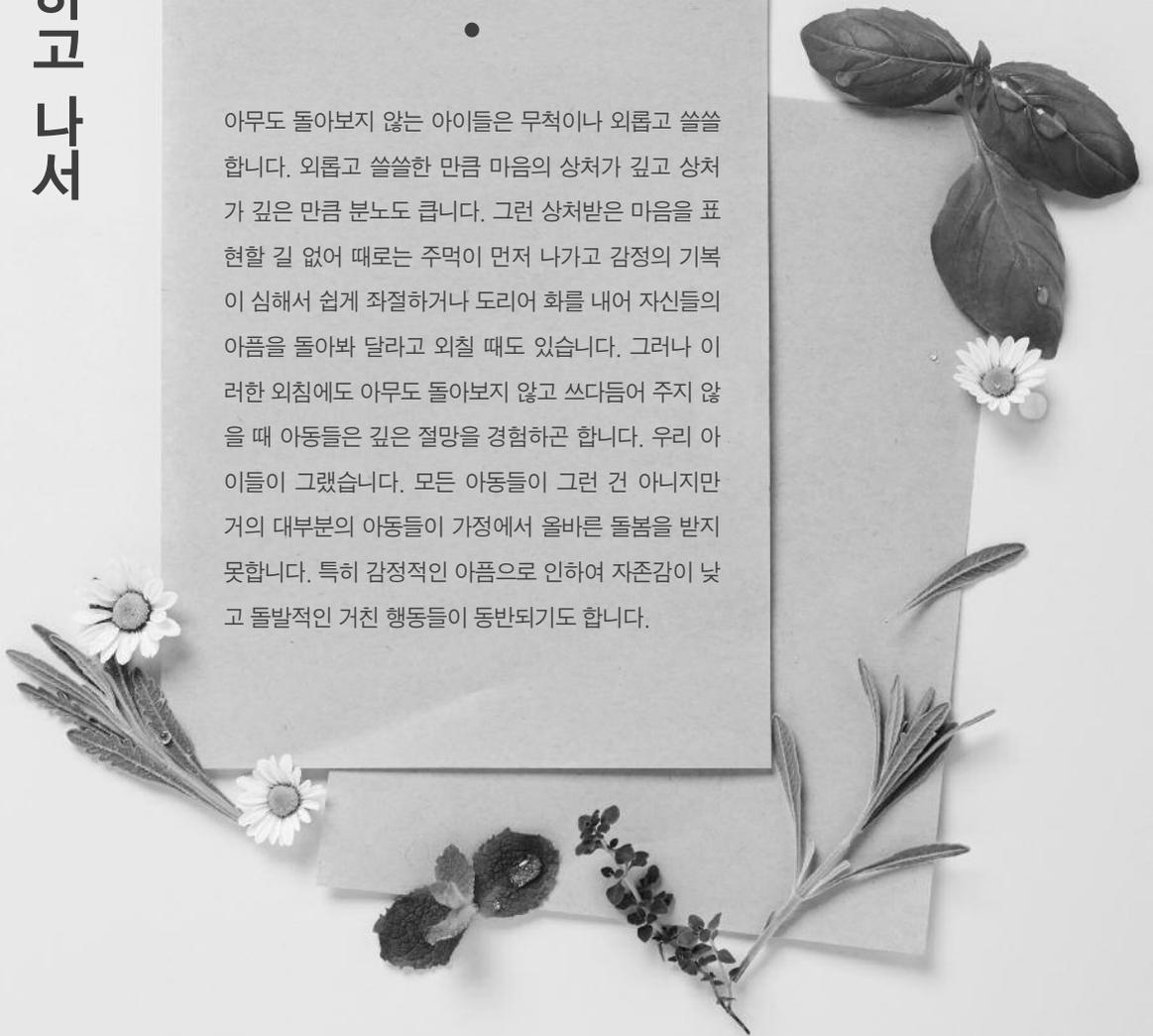
재료 : 깻잎, 밀가루, 다진돼지고기, 당근, 잔파
양념 : 간장, 고춧가루, 깨소금, 다진마늘

MAKE

- 1 다진돼지고기와 으깬두부, 다진잔파, 당근에 소금, 후추, 다진마늘 넣고 섞어주세요.
(돼지고기와 두부의 비율은 1:1)
- 2 깻잎에 물을 살짝 묻히고 밀가루를 발라주세요
- 3 깻잎안에 준비해둔 속재료를 넣고 동그랑게 말아줍니다.
- 4 동그랑게 손질된 깻잎을 나란히 솥에 깔고 간장양념으로 졸여주시면 완성입니다.

명상수업을 하고 나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아이들은 무척이나 외롭고 쓸쓸합니다. 외롭고 쓸쓸한 만큼 마음의 상처가 깊고 상처가 깊은 만큼 분노도 큼니다. 그런 상처받은 마음을 표현할 길 없어 때로는 주먹이 먼저 나가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쉽게 좌절하거나 도리어 화를 내어 자신들의 아픔을 돌아봐 달라고 외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침에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쓰다듬어 주지 않을 때 아동들은 깊은 절망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모든 아동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아동들이 가정에서 올바른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아픔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낮고 돌발적인 거친 행동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명상을 시작하기 전 아동들의 감정과 행동들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났습니다. 마음으로는 관심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행동은 전형적인 문제아의 행동이 동반되는 아이러니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선물같이 명상수업이 아이들에게 다가왔을 때 당황하는 아동들도 있었습니다. 친절하신 무진스님의 자애로운 미소 속에 진행된 명상수업.. 그 정숙한 분위기가 처음에는 무척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이들은 마음을 비워가고 명상을 통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낮았던 자존감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소 거칠고 남을 괴롭히는 것에 만족을 느끼던 아이들이 나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거친 행동들이 차츰차츰 부드럽고 유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명상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가 아동들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쳐서 작은 변화지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고 또 그동안 남에게 했던 행동 중 잘못되고 힘들게 했던 것을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 ‘자기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는 아동들도 있어 교사로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이고 명상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표현을 잘 못하는 아동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이들에게 조금씩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센터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남을 많이 괴롭히고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렸던 대표적인 문제아동이 명상 수업 후 동생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말할 때 목소리가 많이 낮아지고 부드러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의 거친 행동과 남을 교묘하게 괴롭히고 상대방의 힘듦을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의 그 아동은 여러 번의 외부적 심리치료에도 별다른 변화의 모습이 없었는데 명상 수업을 통해 작게나마 변화가 일어난 것은 무척이나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될 명상 수업을 통해 이 아동이 얼마나 많은 변화의 시간을 가질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이기적인 아동이 아우르는 아동으로 변화되어가고, 표정이 어둡던 아동이 밝게 변해가고, 늘 불만 섞인 부정적인 말들을 하던 아동들도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모습이 간혹 눈에 띄어 명상 수업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아동들 입장에서나 교사의 입장에서나 다행이고 무척 기쁩니다. 특히 명상시간에 아동들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웃고 엉뚱한 행동을 할 때도 화 한번 내지 않으시고 늘 인자하신 미소로 아동들을 지도해주신 무진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명상수업 인연을 지어주신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명상수업 하는 날을 아이들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卍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오며,
아미타 부처님께 합장정례 하옵니다.

2013년 어느 봄날이었다.
대학병원 진료실 “암입니다…… 수술과 치료가
불가 합니다……”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왜 나
에게 이런 일이… 살아오며 때로 힘들고 고통스
런 일을 당할 때마다 죽고 싶다고 말하곤 했었
지만, 죽음이 이렇게 턱하니 버티고 씩씩 거릴
줄 어찌 알았을까.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가 인간을 ‘죽음을 향해
있는 존재’ 라고 했던가? 매일 치열하게 살아 온
나의 하루하루가 결국은 죽음을 향해 왔다는 말
인가?
울부짖는 아내와 자식들을 보면서 언뜻 정수리
에 꽂히는 창날은 그랬다.
“그래 수긍하자. 언제는 안 죽나 뭐… 제행무상
생자필멸이라 하드라.”

그 후 두어 달간 나는 떠난 후 남은 사람이 혼란
스럽지 않도록 대소사를 정리 하며 보내고 있었
고, 어느 날 문득 눈을 뜨니 아내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 아흔 장모님도 야단법석, 무슨 일이
있었냐며 역정이다. 그런 장모님께 나도 모르게
꺼낸 말. “오죽 하면 떠났겠어요? 얼마나 가슴
앓이 했겠어요?”
그 후 며늘아이 떠나가고, 딸아이는 파산으로
행불되고, 건강하신(보디빌딩트레이너) 팔순 형
님은 급성 혈액 암으로 이틀 만에 하직 하시고,
조카며느리의 혈액 암 소식 있고… 하늘이 내려
앉았다.
잔인한 업의 내력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요, 이
업의 불바다가 불보살님들의 세계라는 것을 느
끼기 까지 수많은 명을 안아야 했다.
그러며 두려웠다. 죽음을 수용하더라도 이승에

서 저승으로 가는 마지막에 정신 줄을 놓았을 때 미치도록 울부짖고 짐승처럼 울어재끼는 자식들과 잔인한 이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해야 자식들에게 불쌍한 아버리는 저주스런 한을 남겨주지 않을 수 있을까?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후원자로 있으면서 자연스레 염불선 수행에 참석하고 있었지만 가슴속 알알이 맺힌 멍울은 녹아내리다 멈추고 북받치는 한에 통곡만 나고 수행의 실마리는 헝클어져 풀리지 않았다.

‘그래!! 생사의 장으로 가보자.’
나의 체력과 정신력이 뒷받침 될까 두려웠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할 것 같았다. 도전이었다. ‘6박 7일 동안 내 안의 나를 없앤다. 몸과 마음을 정확한다. 교육 중 나를 찾아본다.’ 는 거창한(?) 원을 세웠다.

처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배울까 하는 두려움과 설렘으로 불안했지만, 팔만사천 번뇌를 머리에서는 내려놓고 가슴으로 수행하자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었다.

죽어가는 사람과 그 가족을 가슴으로 돌보며 환자의 남은 여생동안 인간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편안히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신체적 사회적 영적으로 도우며 사별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줄인다는 호스피스와 참 뜻을 새기며, 42기 교육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라는 주제처럼 삶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으며 죽

음이란, 마음속에 그리는 상상의 세계도 그림 속의 아련한 추상도 아닌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며 삶 속에 행해지는 또 하나의 삶이 라는 화두로 6박 7일의 종지부를 무사히 짚을 수 있었다.

교육 막바지, 아미타불을 염송하고, 내 육신이 내 것이냐며 눈물이 범벅이 되어 춤추던 환희 열을 나는 아직도 생생히 느낀다.

교육을 생성하신 능행스님, 살신성인의 스텝들, 41기 선배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함께 한 도반들의 배려와 넘치는 에너지에 자신을 성찰하고 성숙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_ 卍



티벳

내총라마와
함께한



3일간의 이야기



정토마을에 겨울이 내려앉은 12월 크리스마스, 저 멀리 티벳에서 귀한 손님들이 도착했다. 히말라야의 설산이 보이는 티벳 다람살라에서 간월산자락까지 오신 내총라마와 일행 스님들.. 정토마을 가족들을 위한 약사여래가피기도를 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약속이 된 걸음이었다.

내총라마와의 인연은 정토마을자재병원 이사장 능행스님이 달라이라마존자를 친견하며 시작되었다. 달라이라마 존자께선 당시 능행스님이 하는 불교호스피스활동에 칭찬과 지지를 하시며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의 건립불사에 도움을 주시고자 내총라마 툽뎨우둑스님을 통해 정토마을에 약사여래가피기도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당시 내총스님은 능행스님과 정토마을 순례단을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호스피스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붓다께 가피를 청하는 기도로써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하였다.

내총라마는?

내총라마는 내총신을 신탁받은 스님을 말하며 내총신은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수호하기 위해 도솔천으로부터 오신 신중의 한 분으로서 티벳불교와 달라이라마존자의 수호신이라고 한다. 천계의 호법신(내총)으로부터 신탁(신의 계시)을 받아서 관세음의 화신이라 불리는 제 14대 달라이라마존자와 티벳의 큰일에 자문 역할을 한다. 현재 인도 다람살라의 내총사원에 계시며, 달라이라마께서 툽뎨우둑이라는 법명을 내리셨다.

새벽녘 창문밖에 드리우는 햇살처럼 환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는 내총라마와 함께 한 3일간의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지금 시작하려한다.

도착한 당일, 저녁6시부터 내총라마는 정토마을 가족들과 환우들을 위해 풀바기도를 해주셨다.

8세기 구루린포체께서 보장(寶藏 : 후세를 위해 깊은 곳에 숨겨두는 보물)하신 풀바를 1945년 내총라마의 스승이 꺼냈는데... 후에 “깎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이 풀바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내총라마의 숙명이 “깎상~”이고 스승님으로 하여금 풀바를 건네 받으셨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내총라마는 많은 이들에게 이 금강풀바가피를 주고 계신다.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온 손녀부터 허리가 굽어 보행이 불편한 어머니의 지팡이가 되어 온 아들까지 정토마을 후원자, 가족, 그리고 환우 모두가 한 마음으로 불보살의 가피에 환희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둘째날은 화공법회가 있었다. 정토마을의 화공법회는 오전 천도재, 오후 화공법회의식으로 행해졌다.

화공법회란 시방의 모든 불보살님과 천계의 모든 신들께 공양을 올리고 아귀계와 중음계의 일체 중생들에게 공양을 베푸는 법회이다. 공양물을 직접 불에 던지는 행위로 불보살님들께 직접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진행한다.

이 공덕으로 공양 올리는 모든 사람은 전생의 원결과 빚을 풀고 선망부모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천도하며, 업장을 소멸시켜 현생의 발원을 성취하고 장애 없는 수행을 하도록 가피 발원한다. 이날 남은 공양물은 환우들을 위해 쓰였다. 평소 겨울에는 칼바람이 몰아치는 정토마을 앞마당인데 동장군도 가피를 받은 모양인지 바람 또한 입김 불 듯 부드럽고 날씨 또한 적당히 쌀쌀한 정도였다.

덕분일까, 환우분들도 직접 화공법회에 동참하여 모든 불보살님께 온 마음 담아 공양을 올릴 수 있었다.

“보살계를 받는 동기는 일체중생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은 오전 10시부터 계세 이시 발댄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보살계 수계법회가 진행되었다.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계를 받게 되는데 보살계는 그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계로 자신이 완전한 위없는 궁극적인 깨침을 얻을 때까지 귀의하고 세세생생 몇 겁의 생을 얻게 되더라도 이 계를 지키겠다고 발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살계를 받는 동기는 일체중생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전계대화상이신 발댄스님의 법문으로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의 부모님인 진리 앞에 호계합장하며 연비를 받았다. 발댄스님께선 거동이 불편한 환우들을 위해 직접 병원으로 가 보살계 받길 원하는 환자들에게 연비를 내려 주시기도 했다.





수계법회연비의식까지 마친 후 법당에서는 내총라마의 백색돌마 관정이 있었다. 이 시간은 내총라마께서 백색돌마를 직접 친견하여 받은 법을 내려주심으로써 수계를 받아 지닌 대중을 포함하여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환자와 그 가족에게 백색돌마의 가피를 내려주는 시간이었다. 백색돌마는 질병과 재난을 막아주고 장수를 기원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내총라마께서는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 없이 정토마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답게 맞이해 주셨고 정토마을의 비전과 나아감에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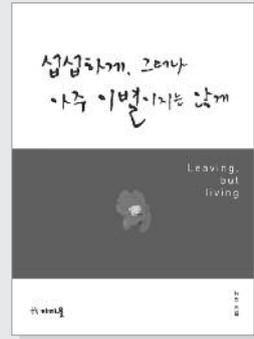
‘3일 간 가피와 환희로써 정토마을을 밝혀주신 내총라마! 3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건강 한 모습으로 만나 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총라마께서 내려주신 가피와 환희가 연비자국만큼이나 내 안에 진하게 남아있다. 卍



부처님! 행복하게

조금 더 살고 싶답니다



한창 웃고 공부할 스물 한 살의 혜송이가 악성 백혈병을 진단받아 고통과 눈물로 삶이 얼룩지고 말았다. 지난 가을 여섯 번째 항암치료를 끝낸 혜송이. 한창 맛을 부려야 할 나이에 머리카락이 다 빠진 채 정토마을 가족이 된 그녀는 예쁜 미소를 간직한 채 7개월째 투병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재발하면 살릴 수 없다는 현대 의학의 사망 선고가 세월에 묻혀가던 중 안타깝게도 그녀는 혈소판, 백혈구 수치가 뚝뚝 떨어지며 재발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수치가 떨어질수록 죽음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스님, 저 괜찮을 거예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애써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웃

는 그녀에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매주 정기 검사 때마다 그녀에게는 하늘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다. 어린 가슴에 일어나는 죽음과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커다란 무게로 어린 그녀의 숨을 조여 올까. 말없이 지켜보는 내 가슴에도 피눈물이 흘렀다. 어떻게 하면 그녀의 해맑은 미소를 되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치료 방법이 나올 때까지 살려볼 수 있을까. 별의 별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신체의 모든 수치가 점점 떨어지며 코피가 나고 열이 나기 시작했다. 결국 주치의 선생님이 있는 성모병원에 입원시켰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온 몸이 통

능행스님 책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중에서

통 부어오르고 항생제 때문에 수없이 토하는 그 모습을 차마 옆에서 볼 수가 없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의 병세를 들었으나 결과는 매번 절망적이었다.

-부처님! 제발 살려주세요. 아직 죽음과 삶의 의미조차 모르는 스물 한 살의 젊은 나이입니다. 부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스님, 저는 제가 죽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살아온 시간 중에 가장 행복했던 7개월이 이렇게 끝날까 봐 무서워요. 행복하게 조금 더 살고 싶어요.

담당 의사가 항암 7차를 시도해보겠다고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허락했지만 열악한 정토마을 재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어떻게든 그녀를 살리고 싶어 부장님께 후원통장을 다 가져오라고 했더니 340만 원이 잔액의 전부였다.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내 존재가 그토록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일 수가 없었다. 항암제 맞기를 지시하고 나서 학교 도반이었던 몇몇 스님들께 3일을 망설이다 간신히 전화를 걸었다.

경제적으로 그래도 여유 있는 스님들이라 부탁해보기로 했는데, 그녀의 사정을 다 듣고는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어떤 분은 도움

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소식은 없었다. 땀 뚫린 가슴으로는 바람만 오갈 뿐이었다.

한 스님 환자께서 임종 전에 방실방실 웃고 다니는 그녀의 약값에 보태 쓰라고 2백만 원을 주셨다. 그리고 스물여섯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가씨의 엄마가 그녀를 살려보라며 또 2백만 원을 보내주셨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채 눈물도 마르지 않은 때,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쓰러져 열 시간이라는 대수술을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를 잊지 않고 챙겨주셨다. 차마 그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지만 눈물을 흘리며 기꺼이 내 손에 쥐어 주셨다.

혜송이가 퇴원한다는 전화가 왔다. 입적하신 한 스님의 자비하심과 딸을 잃은 보살님의 뜨거운 눈물로 그녀가 많이 좋아져 정토마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온단다. 그녀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아아, 한 번 웃을 때마다 꽃이 활짝 피는 것 같은 해맑은 미소를 가진 그녀가 살아 다시 정토마을로 돌아온단다.

한 생명의 가치가 우주의 가치와 무엇이 다를 수 있겠는가. 내가 없으면 우주도 없는 법. 따라서 우리 모두는 우주인 것을..... 卍

이티재를 넘으면서

요즘도 한 달에 두 번은 몇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이티재를 넘어 전원항기가 가득한 정토마을로 향한다.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소식지 우편물 작업은 청주 불자봉사단 단원들이 전문적으로 오랜 기간을 해 왔기에 숙달된 솜씨로 오차 없이 잘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 때문이다.

정토마을과 인연을 맺은 지도 어언 10년 세월...

2005년 청주불자봉사단 창단한 무렵, 불교사회복지 시설에 봉사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찾아가던 청원군 미원면(지금은 청주시), 그 곳에는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은 독립형 호스피스센터 정토마을이 있었다. 당시에는 호스피스 교육생을 위한 교육장 준비와 여러 가지 발일도 도와드리면서 주로 한 달에 한번 들려서 환우분들의 목욕을 보조하는 일이 우리들의 몫이었다.

다행히 단원들 중에는 어르신을 모시거나,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 환우 분들을 보조하는 일에 큰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었고, 또 나 같은 초보자들은 부역을 보조 하는 역할을 담당하거나 법당 청소하는 일을 하면 되었다.

봉사 있기 전날은 문자를 보내 참석희망자를 파악하고, 만날 장소를 정하는 일도 중간 중간 확인하고, 당일 일은 서둘러 약속장소로 나가서 봉사자들을 태운다.

이티재를 넘어갈 때 차안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지난번 계셨던 환우 분들이 잘 계시기를 바라는 소망들로 가득 찬다. 그러다 한 달 사이에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마음 한쪽 밀려오는 허전함으로 마음이 아프다.

공허함, 무상함이 온 마음 가득한 날도 있었다. 방금 전에 제 손으로 목욕시켜드린 환우분이 당일 봉사활동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운명하셔서 하염없이 평평 눈



물을 쏟아내던 젊은 봉사자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며 생사의 찰나 같은 순간을, 생노병사의 무상함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다.

봉사하는 보람과 즐거움에서 약간의 권태와 매너리즘에 빠질 즈음 나에게 찾아온 병마. 그 병마와 싸우고 극복하면서 작은 힘이나마 남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재차 무장하니 요즘은 구녀산 고개 넘는 일이 마냥 즐거움이다. 그리고 바쁜 시간 내어 동참하는 정토마을의 자원봉사자 한분 한분과 함께 할 수 있음에 행복하다.

정토마을을 기반으로 언양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을 건립하고 오랜 호스피스교육을 통해 호스피스활동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보살행을 몸소 실천하시는 능행스님의 모습을 보면 미려한 힘이나마 보태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어느 스님께서 “행동하지 않는 자비는 진정한 자비가 아니다”라고 하시던 법문이 되새겨진다.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지만 고통을 적게 받으면서 이승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웰다잉(well-dying)이 붐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닌가. 나도 언젠가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것이고 그 문턱에서 어떤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보상의 의미보다도 내가 나중에 봉사를 받는다면 지금 봉사하고 있으니 덜 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죽음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부처님 품으로 더욱 당당히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 몸과 마음이 허락하는 한 봉사의 손길을 놓지 않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챙기면서 살고 싶다.

울산 언양에 자재요양병원이 생기고는 우리들의 일거리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정토마을이 힐링센터 ‘깨달음의 학교’로 리모델링 중이라 하니 사뭇 기대된다. 그렇게 또 다른 모습의 정토마을을 그리며 이달도 이 티재를 넘어 간다. 卍

| 청주불자봉사단은?

청주불자봉사단은 청주권의 최초 불교봉사단체로 2005년 충북불교대학을 졸업한 도반들과 재학생들이 뜻을 모아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토요일은 독거어르신 50여명에게 밀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해드리고, 둘째 주 일요일은 군부대법당에 찾아가서 문가스를 만들어 장병들에게 배식지원하며, 한 달에 한번은 정토마을 봉사를 하는 소속된 사찰이 없는 불자들의 봉사단체입니다. 100여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재가봉사단체로 간혹 이웃종교인과 무종교인들도 가입하기도 합니다.

| 글쓴이 여옥순님은?

정토마을에서의 추억을 나눠주신 여옥순님은 정토마을에서 넘긴 달력의 수만큼이나 오래된 자원봉사자입니다. 정토마을이 독립형 호스피스센터일 때엔 환우의 목욕보조, 식사수발 등 환우와 가까이 호스피스활동을 도와주셨고 청원에 ‘깨달음의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도 많은 후원자들에게 정토마을의 정서와 소식을 전하는 계간지와 권두언 등 발행물의 우편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Cartoon | 내가 낸 후원금 이렇게 쓰이고 있었어요

?
한마음씨

불교최초 호스피스병원을 설립하고자 노력하는 정토마을에 기부한 지 5년째..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이 건립된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

어서오세요, 정토마을 법인사무국입니다.
현재의 정토마을 모습이 궁금하시다고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마음씨 **정토양**

수행과 돌봄으로 인류와 일체생명의 평화적 공존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토마을의 영성

<p>의료중심 포교</p> <p>의료 사업</p> <p>○</p>	<p>임상교육중심 포교</p> <p>교육 사업</p> <p>○</p>
---	---

정토양 의료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년간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후원자 한분 한분의 소액기부금이 모여 호스피스 전문완화의료병동을 모델로 한 자재요양병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수익적인 구조이기 보다 환자 한 명과 그에 따른 한 가족의 삶의 질을 언제나 생각하고 전인적 돌봄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후원금으로 자재요양병원 운영금을 지원하며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승가병동

전인적 돌봄을 위해 쓰이는 후원금

1. 저렴한 입원비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
2. 임종을 앞둔 환자의 보호자들의 경우 24시간 환자의 곁에 머물기도 하는데 환자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사를 무료로 제공
3. 향리환자나 불우한 환경에 있는 환우, 그리고 스님을 위한 입원 및 치료 지원금
4. 의료기자재를 마련하고 부족한 호스피스병동을 증축

정토양

현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완화의료병동**을 증축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건립불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마음씨 **정토양**

호스피스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 다음호 계속

Who One | 누구나 하나 되는 방법

‘Who?’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든 이들에게.

‘One!’ 누구나 하나 됨을 실천으로 가르쳐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 내주신 마음에 감사합니다.

간월산 자락의 기풍일까요, 매화향이 한 가득 봄이 다가옴을 알림에도 돌산에 부딪쳐 성이 난 칼바람은 정토 마을 마당을 쓸고 다닙니다. 하지만 매서운 바람도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안까지 스며들진 못하나봅니다.

환우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레 돌보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돌봄가들의 열정과 사랑이 돌산보다 견고하기 때문인가 봅니다. 정토마을은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중환자실 증축을 위해 또 한 번 뜻을 모아 불사를 감행 하였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힘을 내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모든 후원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덕분 입니다. 정토마을은 후원자님들께서 모아주시는 그 마음의 힘을 원천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후원자님이 정토마을 모든 불사의 시작이고 마침입니다. 언제나 무한사랑과 신뢰로서 정토마을을 지켜주시는 후원자님, 자원봉사자님 한 분 한 분께 한량없는 복덕이 가득하시기를 발원합니다.

이번 호는 2015년 5월 28일부터 2016년 1월20일까지 작성한 신규 후원자 명단으로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명단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후원자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다 실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후원자 전체 명단은 정토마을카페(<http://cafe.daum.net/BHU>)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타나 누락 등 기타문의사항 및 후원문의 시,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052)255-8588로 연락바랍니다.

5월

일시후원 | 성기순 장지흥 천안 김은경
정토가족후원 | 신록희 이상백 박광건 정영숙 정정화

6월

108병상후원 | 강문자 담오스님 배원식 우룡스님 장태호
엄효순 이상태
일시후원 | 강옥희 김동숙 김은숙2 낭성몽 늘감사합니다 법당일년등
부산관음회 석남사 석남사포교원 오성물산 윤경숙 이경희
이정해 장안사연꽃회 정의영 이정란 소춘화 주선희 최경숙
정토가족후원 | 강대홍 공선에 공태홍 곽태영 권성열 권영구 김금숙 김문
행 송재준 김미애 김미양 김미하 김순옥 노금순 노병희
도안스님 민소영 박봉아 박순희 박창 허미자 서명희 서정
숙 석남사 신정규 양주희 유재용 이경화 이성선 이승미
이승옥 이정해 이지영 이혜진 이경우 정미경 조금구 조옥
희 최경희 최은화 하영미 허유경 허민희 허재희

7월

의료기자재후원 | 신우영
일시후원 | 무명 김영주 김윤미 도경스님 도순남 윤재환 이남이 임태정 장
귀연 장금선 장지흥 종성스님 차인숙
정토가족후원 | (주)원광기계 강채민 최재민 권환옥 김경자 김대식 김성
기 김영미 김옥화 김옥희 김종국 김홍업 김희진 김희옥
문명옥 문미옥 박성 박소자 박원복 박정환 박현 배순자
성기숙 성민화 성미화 성운기 송유천 심은애 양교직
우덕자 이나은 이영서 이영혜 이정스님 이종숙 이현정
이혜경 임학규 정승아 정태기 조인자 조혜정 진혜경
최규홍 최순자 하태규 황현숙

8월

108병상후원 | 최경순
의료기자재후원 | 임분선 장은희
일시후원 | 권은경 백승순 참회
정토가족후원 | (주)여일 강창호 강현리 고득린 광병찬 광병찬 권두리 김
경자 김규찬 유문봉 김승현 김미경 김성일 김성자 김수연
김순련 김시현 김영순 김옥희 김은숙 김의순 김주성 김주
은 김지자 김태호 노시는 노인찬 노동욱 노태임 만옥스님
명노희 문숙자 박광자 박명숙 박문택 박미경 박수련 박정아
박정진 박현희 상덕스님 선경스님 손영자 손재선 신영옥
안정은 김승현 김남태 양영규 엄효순 우갑순 윤종철 이경숙
이남연 이동조 이방우 이상권 이수경 이순자 이영순 이영철
이창희 이혜숙 임선주 임준호 자성스님 장윤희 정순옥
정영순 김보겸 정인순 조태욱 주수영 청연스님 최경순
최계분 허정애 홍태순

9월

의료기자재후원 | 김경서 류순귀 이혜진 이진욱 우승스님
일시후원 | 강상호 박옥련 박혜숙 신병량 전정현 충남대학교병원 철곡경
북대병원
정토가족후원 | 김규리 김명주 김보희 김성숙 김은진 김정순 노영란 박덕
임 박명자 박순자 박희정 백영희 성정스님 심영숙 여운광
유지명 이미자 이서영 이상경 이옥자 이점자 이정해 임상
찬 장순애 정대홍 정정숙 조제순 채명희 배용린 필가은
현달스님 혜신스님 황미순

10월

의료기자재후원 | 이주재
일시후원 | 김도로시 신성우 종성스님
정토가족후원 | 강경화 강미선 강병옥 강복실 고문희 권미순 권태분 김경
남 김옥희 김현숙 김현영 김현주 박수복 박종희 박혜경
백미경 신인경 안국향 연광스님 권희정 권수형 이순남
이조 임귀숙 정애정 조성원 진삼선

11월

108병상후원 | 고윤옥
의료기자재후원 | 이영오 법혜스님 일륜스님 허경자
일시후원 | 강남봉은사 거제도효불사 도경준 정석이
정토가족후원 | (주)코스맥 강경자 강상호 김광선 김광열 김미정 김민정
박향연 김상수 김성애 김중화 김준만 김치근 남병택 남숙희
노갑섭 다운스님 류인숙 박미숙 박선영 박재서 서은정
허희경 서종환 송개영 최인선 심재서 나현희 유경태 유순애
이남이 여준석 여원태 이단희 이문교 이용덕 정복미 박지연
정진희 허수빈 홍명자

12월

108병상후원 | 천필순
일시후원 | 39기연지회 41기연지회 광미경 김광선 김길홍 김미자 김정애
김태호 도유스님 박경숙 박계선 박신숙 박연주 박종현 배영화
범광스님 안국향 양은순 원인희 윤연숙 이문숙 이영순 조임순
주경자 최세진 최정순 해광스님
정토가족후원 | 강신규 강혜선 강홍모 고윤옥 김명랑 김중현 김화옥 박규량
박삼옥 박삼미 익명 석대원 송말자 신윤희 오지연 이순남
이순애 이재백 이재섭 이천영 정다을 최정숙

1월

의료기자재후원 | 김환섭 장성경 대전관음회 박영순 박숙희
일시후원 | 이경임 자비실천모임 김순자 강미숙 박경민
정토가족후원 | 차월선 김혜영 백정근 조순희 임병두 엄선자 윤재현 윤병혁
중수스님 한명기 조영순 김순화 장경희 강재락 황성희
조정숙 박정화 정석원 김승환 김인영 최미란 최은뜸
한민자 정순기 최지성 이승수 안혜수

소중한 나눔 실천에 감사합니다

5월

땅한평공양불사 | 김종권 이지영 이상원 김진옥 김창범
자재병원건립후원 | 이미경

6월

땅한평공양불사 | 묘전스님 이순득 김인희 이학익 정지화 박봉수 김수홍
박선이 박병희 이승미 강정수 최경연 박성진 윤치순 이
용우 김명인 이용재 이상연 주재금 이용진 한금자 이윤
주 김정식 김순열 박정자
법당불사 | 강동기 오지연 조원준 오치만 정연옥 이육선 김태순

7월

땅한평공양불사 | 김성희 덕인스님 이영출 박현 박성 박미선 이차복 고하
신 이달필 한유림 차차선 이종철 최본각 김영애 김정희
정길모 박영숙 이재순 송위지 여여선원 황다원 홍진필
법당불사 | 유재용 최완수 박현용 윤암스님 박지비성 박옥숙 이정희 오광민
2015 희망시멘트 | 문성삼 강경숙 강지모 김소연 유인아 한민자 박화자

8월

2015 희망시멘트 | 하옥자 이정희 김상하 김회진 윤상문 윤만호 박윤경
최지에 김중자 황순남 박지환 송문일 정소희 김수방
필가는 황우석 강호갑 박정희 강경숙 박성길 채순희
서상옥 민상기 김성자 김홍문 이봉자 장은희 배창경
강성미 김중배 박희숙 임시화 임명선 이원순 박성용
진익조 윤성자 강미영 동산스님 윤성중 조남희 신춘
강 신남학
관세음보살(원불) | 박정아 김성규 김영희
땅한평공양불사 | 최상문 김주희 김건도 공군자 염효순 김주는 최은주 김
지원 김승준 손재선 이민형 황순남 류현덕 임선주 문남
해 성금희 김성례 최영이 김영희 정승아
지장보살(원불) | 김순자 김성달

9월

2015 희망시멘트 | 박옥련 한성웅 최혜선 박화자 윤미자 김민수 정법사
서울보현회스님 최본각 신동현 김이숙 이승욱 김명와
임옥희 이연옥 이재용 이봉숙 박효일 손정미 김희숙
이혜진 임재수 조인서 최판순 이유범 손정미 박정희
손재선 이미연 박종말 박기란 호연스님 혜광스님 김
영숙 김명규 김순규 김귀덕 이동훈 서용스님
법당불사 | 윤영자 김갑순 최봉준 묘전스님 김태한 김상남 정은희 강경숙
박근태 이경락 이희숙 이노갑 송동영 상진스님 조정환 양한석
정호정 정재경 강영관 정은희 김준혁 김명숙 김대현 오인숙
묘전스님

땅한평공양불사 | 강정숙 손은선 장희석 최상문 박순아 김주는 수현스님
민경자 성정스님 혜신스님 김규리 김건도

10월

2015 희망시멘트 | 이은숙 김규식 이영철 정순철 정쌍집 이영철 권순선
김광민 류명옥 김영석 박종연 정은진 이갑인 김윤주
김이자 조숙연 김정숙 곡진 곡근 김윤자 김평업 신선옥
이철선 최성덕 노혜련 정미숙
땅한평공양불사 | 안혜경 이동훈 만법화 허수복 김영식 최명남 박선희
박수현 박민철 윤정자 김명숙 이종태 정복임 불광사
현달스님 백정옥 강영희 강경화 고문희 이상복 허연희
자연스님
법당불사 | 김중옥 여태강 김경자 박현용 김연수 정한구 김한근 여경도
정동한 신기연(정태기) 박자비성 박선이 박정애 이연숙 이창희
이수영 박정순 홍기현 김용애 신나영 신가영 김춘자 강상호
대선스님 김민수 박윤례 조민경 지장정사 김주희 김경희
자재병원건립후원 | 박옥련

11월

2015 희망시멘트 | 노점에 이정수 김병강 영우스님 정길모 이만재 이명기
신경식 정정숙 이종천 김중금 홍경자 정영순 강영자
법당불사 | 강혜리 강승훈 강범식 이은연 김회진 박희순영가 강태건 김회진
자재병원건립후원 | 김선아
땅한평공양불사 | 이정수 만법화 최영자 유경태 김선아 김승정 김남수
전정현 배연희

12월

2015 희망시멘트 | 이혜숙 심재원 박민자 박경옥 정영웅 박장 박근 박명순
이병학 이인자 이병성 김시애 오성희 이은경 손영숙
김정화 임외남 최정숙 손병숙 김성훈 오익환 김명숙
황대성 이경희 하명애 한갑순 표성수
법당불사 | 심재원 심규호 심현지 권태영 심가인 심규석 김경주 심옥성
조명희 이경세 이명자 심현규 심옥진 유현성(유현진) 이경은
권영달영가 유탄실영가 이경순영가 변형식영가 변태식영가
김성표 정팔모 심수현 김민정 여호준
땅한평공양불사 | 만법화 조명희 김시에 박규량 윤석자 오익환 여호준
자재병원건립후원 | 부산아단법석(보광, 바다, 월광화) 황민하 김형근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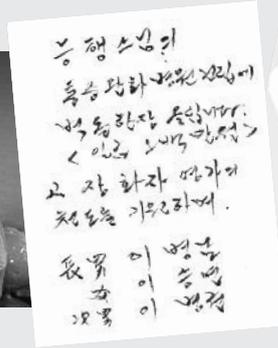
2016 땅1평공양불사 | 김태원 만법화 월인스님 주성스님 제순스님 박영순
이춘미
2015 희망시멘트 | 이영자 안효자 혜광스님 박연주 송희승 안정은 박정화
김봉삼
법당불사 | 박영순 정순례 흥병희 조정숙

물품후원자님, 감사합니다

김연순 찹쌀
정법성 찹쌀 외
오복암(혜원스님) 쌀
권민지(허준열) 압력밥솥 외
함양 사리암 쌀
대광명사 쌀
문수선원 염장다시마 외
이영애 수세미
김영진(이원순) 수박 외
다울커피 원두
도갑스님 다시멸치
백저 멸치
정용애 쌀
동곡스님 쌀
남정애 감자
대구대원사(현정스님) 쌀 외
이지서 마파두부 외
여허스님 수박
손영윤 쌀
운문사 파프리카 외
부산길상암 탄성스님 수박 외
김태건 오븐장갑
박계선 참외 외
권철오영가 쌀20kg
간호부장 어묵
무명 쌀
선우회(법성심) 롤휴지
평등각 청정면
이난정(수정심) 쌀
봉녕사 미역
수자타 옥수수
김두연영가 쌀 외
산청 하림사 쌀
운암스님 비타민c
한방부장 옥수수
대구 내원사 찰보리 외
정장화 치약
박춘서 옥수수
해광사 쌀 외
적조행(39기) 행주
법인스님 옥수수

추림스님 수박 외
문경미 파인애플 외
성복암 멸치 외
김채민 포도 외
박순녀영가 복숭아
도안스님 복숭아
연호스님 복숭아
손재선 복숭아 외
박순영 복숭아
청제스님 복숭아 외
장안중 찹쌀
양은순 주키니
이재용 쌀
동산스님 미역
산청 화림사 쌀
성주 청매암 연잎밥
황순남 보호자 쌀
김재호 포도 외
한라정토회 굴
이영실 포도
장은희 세수비누
경성미가 쌀
강정숙 찹쌀
행복한 농부 쌀
이원기 쌀
여여림 찹쌀
이영자 세수비누
강민정 세수비누
김재호 배 외
염불수행 참가자 주방세제
김화순 환자 김
해광스님 박무진 거봉
송안호 사과
신한은행지점장 배
부산은행지점장 김
운문사 사리암 미역 외
청제스님 신도 전병
연화심 과일 외
sk텔레콤 온누리상품권 10매
수근스님 찹쌀 외
현불회 롤휴지

청원 정토마을 고춧가루 외
재마스님 호두
한해성 쌀
김중호 쌀
문운보살 고춧가루
수연심 고추
대화스님 요플레
양진희 찹쌀 외
우리밀칼국수 감
영원스님 만두
김원자 대봉
한태순영가 쌀
진말숙 쌀
환희주 고구마
안미주 감
해운정사 쌀 외
41기 회장 치즈 외
도갑사 선하스님 감
정연스님 감
김화옥 굴
김가영 마
최정석 김장김치
이해구 고구마
김정옥 찹쌀 외
박미라영가 굴
대원사 건미역
법흥농원 절임배추
정외덕 쌀
문영조 굴
지불안 동지팔
오봉사 신도회장 찹쌀
신성우 쌀
안정은 떡
손유미 떡
김희철 굴
추재열 표고버섯
정법성, 자비행, 상락행 소고기
지장암 주지스님 청국장
신수정 굴



감사합니다

• 前LG인화원 이 병남 원장님께서 2016년 1월 22일 정토마을 “정토마을자재완화의료병원건립기금”으로 오백만원을 기부하여 주셨습니다. 어머니시인 고 장 화자영 가님 49제 중에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빌며 말기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우들을 위하여 무량공덕을 베풀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하여 가족 모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전라남도 지역에 살고 계시는 김형곤 불자님께서서는 아내와 함께 평소에 후원하시던 정토마을 자재병원을 방문 하셨습니다. 자재병원환우들의 삶을 돌아보고 싶어서 선달 찬바람 가르며 다니러 오셨다가 정토마을 자재병원에 병실이 부족하여 입원 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시고 중환자실 확장을 위하여 오천만원을 기부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정토마을은 그 기부금으로 한 분의 환자라도 더 모실 수 있도록 급한 대로 현재 자재요양병원 3층 병실을 조금 더 확보하기로 하고 병실확충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불자님의 크신 공덕을 수희 찬탄하며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 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정토마을은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운문사승가대학 일진학장스님께서 정토마을 “자재완화의료병원 건립기금”으로 일천만원과 금 10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정토마을가족들은 일진 학장스님의 따스한 자비심에 공경히 예배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듯 자재완화의료병원 건립불사에 온 마음을 내어주신 고 정화자 영가님 가족분들과 종성스님, 도경스님, 일진스님, 자광스님, 김형곤님, 서울 봉은사를 비롯한 모든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자원봉사자 소식



2015년 월동준비 김장담그기 행사

11월26일 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 된 정토마을 김장하는 날, 27개 단체와 개인봉사자 및 환우 보호 자님들이 동참해주셔서 환우와 보호자가족들을 위 한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미용봉사

단체 5곳(35기연지회, 초심회, 행복나눔, 바라밀회, 오정희 봉사단체)에서 매주 1회 1팀씩 돌아가며 환우님 이. 미용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시고 계십니다.



일청국악원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국악,민요 등 환우님들의 생신잔치, 프로그램에 참여 즐거움과 행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서로의 생명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토마을은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끌어집니다. 환우들은 자원봉사자의 미소에 기운을 내고 정토마을의 구석구석은 당신의 동참으로 밝혀집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한 자원봉사를 통해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단위 자원봉사

09:00~14:00, 13:00~17:00, 17:00~21:00

일일 자원봉사

10:00~17:00(주간), 20:00~익일 05:00(야간)

주간 자원봉사 주 1회 | 장기자원봉사

도움분야 비품관리, 병원 실내외 청소, 환우목욕, 방문객안내 병원 안내, 도서 나눔봉사, 환우 수발라운딩, 환우들과 함께 산책, 치유방송 지원 봉사, 행정지원 봉사, 화훼(정원수 관리),

재능기부 임상기도, 임종 돌봄(교육 이수자 가능), 집단·개인 공연(음악 악기 춤 등), 아로마 치료, 이·미용, 물리치료분야(카이로프랙틱, 온열 치료, 갈바릭 치료), 의사선생님주말 자원봉사(양·한방, 치과, 이비인후과)



·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 전화 ☎ 052)255-8408 담당자 김은구 사회복지사



정토마을 송년의밤

12월 18일 정토마을공동체 송년회가 마하보디교육원 1층 대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직원 및 환우와 환자가족,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교수진 및 학생들, 교육원과 법인사무국 직원, 정토마을승가공동체 등 정토마을 가족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2015년 한 해에 있었던 다양한 일들을 나누고 또 2016년도 한 마음으로 나아가리라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내총라마 초청 기도 법회

티벳 다람살라에서 오신 내총라마를 모시고 12월 25일 풀바기도, 26일 화공법회, 27일 수계대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중환자실 증축 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주시고 환자와 환자가족들, 정토마을 후원자와 직원들을 위해 붓다의 가피를 내려주셨습니다. 환희가 넘쳤던 3일간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스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기억하였습니다.



법화산림 천일기도 고승초청법회

정토마을에서는 매월 넷째주 일요일 법화산림 천일기도법회가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동훈스님, 계시빨덴탁바스님, 수환스님, 일우스님, 반산스님 등 큰스님들께서 정토마을법화행자들에게 부처님께서 최후로 설하신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법화경천일기도 고승초청법회는 3월에도 법화경강설에 능하신 유능한 법사님을 모시고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화경 21일 장좌기도 봉행

정토마을 승가공동체 스님들이 21일간 밤낮으로 용맹정진하는 법화경 장좌기도를 2월 2일 입재하여 2월 22일 정월대보름날 회향하였습니다. 이번 장좌기도 회향 때는 경주 감포에서 방생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장좌기도를 신청한 모든 불자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존재들이 일체의 재앙과 마장을 소멸하고 마음 속 소구소망을 원만히 성취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춤동작표현예술치료 (2015.12.3 목요일)

서혜인 춤동작치료사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교구를 통해 동작들을 표현함으로써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안내자와 주위에서 함께하는 이들의 지지와 위로의 경험이 자기 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놀이마당 서부노인복지회관 시니어예술봉사단

12월 17일에는 서부노인복지회관 시니어예술봉사단에서 환우들을 모시고 즐겨 부르시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며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웃음치료와 레크레이션 활동으로 함께 지내는 환우간의 소통의 장을 열었습니다.



**놀이마당 개구리예술봉사단
서부노인복지회관 시니어예술봉사단**

12월 10일 목요일, 개구리예술봉사단이 자재병원 입원환우들과 함께 옛 노래를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17일에는 서부노인복지회관 시니어예술봉사단에서 웃음치료와 레크레이션 활동으로 함께 지내는 환우간의 소통의 장을 열었습니다.



12월 재원환자 생일잔치 (2015.12.23 수요일)

일청국악예술봉사단, 호스피스교육생 생일잔치를 통해 환자분의 고귀한 삶을 위해 가족들과의 만남 그리고 병원 전직원, 봉사자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드리며,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기 불교입종의식 실시

2015년 12월 12일, 마하보디교육원에서는 2박 3일 일정으로 제2기 불교입종의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스님과 재가자 19명이 참석하였고, 이론과 실기 총 23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12월 14일 수료하였습니다.



파랑지역아동센터 명상수업 종강

2015년 12월 28일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에서는 파랑지역아동센터 명상수업의 종강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9일부터 시작되어 총 6회로 올해를 마무리한 이 명상수업은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시행되었으며, 지역 소외아동 정서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인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명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의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2기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 51명 수료

2016년 1월 3일, 마하보디교육원은 6박 7일 일정으로 제42기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생사의 장은 생사를 인생이란 한선에 놓고 현대인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발견하게 하는 장으로서 스님과 재가자 51명이 1월 9일 모든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였습니다.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 영화치료 공개특강

2016년 1월 30일(토) ~ 1월 31일(일) 2일간 매체심리연구소 장인규 소장이 진행하는 “영화, 심리학과 만나다.” 공개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15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을 통해 예술치료와 영화치료의 개념을 이해하고 교육 및 심리상담에 활용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토마을 함께 가꾸어요

정토마을 소식지에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정토마을 소식지 광고면을 채워주세요.

정토마을은 정토마을 후원자분들이 받아보시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이 책을 법보시하는 공덕을 나누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동참해주신 광고료는 정토마을 소식지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토마을과 함께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법보시 동참금 : 전면 40만원 | 1/2크기 20만원 | 1/4크기 10만원

문의처 : 정토마을법인사무국 052-255-8587 / Fax, 052-254-2347

법화산림

고승초청 천일기도 대법회

일 시 매월 넷째주 일요일

일 정 오전 9시 불공 / 오전 10시 : 법문 / 오후1시~5시 : 법화경 독송 및 축원

초대법사 매월 교계 어른스님을 초대합니다.

장 소 정토마을 대법당

동참금 천일기도 동참금 108만원(매월 3만원 분납 가능)

계좌번호 농협 401131-51-081662 (재)정토사관자재회

문 의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052)255-8588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후원자 함께 가꾸기

1인 1만원 십만 정기후원자 운동

선한 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릴레이에 함께해요.

한 사람의 후원은 한 인자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기부금, 이렇게 쓰입니다.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기금으로 사용되며
불치병 환자를 비롯한 암환자들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익사업 기금으로 쓰입니다.

나눔동참

상세한 기부금 내역은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정토마을 후원사무국 (052) 255-8588

국민은행 713701-01-001909 / 농협 401131-51-080245

예금주 (재)정토사관자재회

해외송금 kookmin bank seoul korea

계좌 713701-01-001909 (JUNGTOHOMAEUL)

접수방법

전화 052-255-8588 팩스 052-254-2347

방문 울산광역시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재)정토사관자재회

홈페이지 www.jungtoh.org

정토마을 염불 禪 수행에

현재의 삶 안에서는 기쁨과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이 몸을 벗어나는 그때가 되면 자연스러운 벗어남을 통해서 정토에 왕생하는 복을 얻게 되는 염불수행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 언양 정토마을 염불수행 안내 |

일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 저녁 6시 수행을 위한 예비준비, 7시 염불 본수행

장소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정토마을 대법당

접수및 문의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052-255-8588



등행스님과 함께 떠나는
스리랑카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식

환희로운 법석으로 인연 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정_ 2016년 3월 16일 ~ 21일

문의_ 전화 052-255-8588 / 팩스 052-254-2347 / 평등각 팀장 010-3879-7953

입금계좌_ 351- 0487-2570 -73 (예금주 정토마을)

※세부일정과 준비물은 추후 공지 드리겠습니다.

여권복사와 예약금 20만원을 보내신 분에 한하여 선착순 마감합니다. [사전 연락 필수, 마감임박]

자세한 일정 및 관광지 정보는 정토마을카페(<http://cafe.daum.net/BHU>)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법당불사 모연문

‘삼천불’

아미타불을 본존불로 모시고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삼존불과 삼천불(관세음보살, 약사여래불, 지장보살)을 조성하여 불자님 한분 한분의 뜻깊은 서원을 모시고자 합니다.

뜻있는 불자님들의 수희동참으로 무루의 복전을 일구시고 이차인연공덕으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며 모든 생에 불국토에서 태어나기를 발원합니다.

불사가 여법하게 회향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에너지를 모아야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정토가족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불사에 매진하여 환우들의 의지처가 될 수 있는 법당을 마련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존불 조성불사 아미타불 - 동참 500만원 이상

삼천불 조성불사 약사여래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 각 108만원

(일반 동참 10만원 이상)

입금계좌 농협 351-0487-2570-73 예금주 정토마을

전화 052)255-8588 팩스 052)254-2347 (화주: 평등각)

神通所謂妙法
法界虛空界寂靜方便
在名稱光天王得普觀
在解脫門清淨功德眼

時於劫如是旋心
攝受種種
於方便
出離道
了以勝
於諸佛

자재병원에 법당이 없어요?

땡 한 평 공양불사

후원자들의 따뜻한 가슴이 모여 오늘의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이제 환우와 보호자들이 부처님께 기대 아프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법당 건립을 위해 땅 1평 공양불사를 발원합니다. 현재의 정토마을 건축부지로는 삼존불과 삼천불을 조성하는 법당 불사에 턱없이 부족하여 법당 공사 착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땅1평 공양불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 마음의 꽃밭을 가꾸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뜻 깊은 서원을 한 곳에 모으고자 합니다. 땅 1평 공양금은 1인 30만원이며, 일시불 또는 3회 분납으로도 공양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일시불 입금계좌 농협 **351-0487-2570-73** 정토마을

3회분납 입금계좌 국민은행 **701401-01-202462** (재)정토사관자재회

전화 052)255-8588 팩스 052)254-2347 (화주 : 평등각)

※ 정토마을의 후원과 불사에 동참하시면 연말 기부금영수증 발급해드립니다.



완화의료 중심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Healing is loving. 사랑이 곧 치유입니다.

3F 승가병동

한방요법실, 물리치료실, 사회복지실, 영양실, 힐링푸드식당, 차담실, 공용 목욕실

2F 재활·요양병동

마하치유방송실, 휴게실, 텀비실, 영적돌봄연구실, 공용 목욕실

1F 완화의료(호스피스)병동

양·한방 진료실, 집중관리실, F·G실, 입원상담실, 원무과, 공용 목욕실

B1F

임상병리실, 약국, 바이룸, 봉사자실, 직원 휴게실, 교육장, 한방 약제실, 탕전실

· 전문의료 서비스

내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 양·한방 협진진료

- 양방특수요법 : 항암면역증강요법, 미술토주사, 메가비타요법, 마이어스 카테일 주사 등
- 한방요법 : 한방 침 뜸 부항요법, 전침, 탕약치료, 약재요법 등

· 특화치유 서비스

- 예술융합치유 : 음악, 미술, 요가, 춤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통해 심신치유와 자기 성장을 만들어 가는 자기융합의 행복한 과정 경험
- 임상전문 상담치유 :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중재 조절과 적극적인 영적 돌봄을 통한 치유. 임종기도와 의식을 통한 편안한 여정으로의 동행

· 진료안내

외래진료 : 09:00-18:00 입원상담 : 052)255-8400
(월-금요일, 주말 공휴일 휴무)

· 입원 대상자

완화의료(호스피스)대상자, 암환자(초기, 진행, 말기)
중풍노인치매 만성질환 수술 후 회복기관에 있는 환자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의료기기모연

자재요양병원 환자들의 건강 돌봄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각종 의료기자재와 의료기기' 모연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기울여 주시면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에 큰 힘이 됩니다.

| 후원금 입금계좌 안내 |

농협 **815039-55-003185** (정토사관자재회)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전화 052)255-8588 팩스 052)254-2347
홈페이지 www.jungtoh.org



자재요양병원 한방약제실 직접제조

신뢰할 수 있는 한약재료를 사용하여 정성을 다해 제조합니다.



공진단

각종이서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명약으로, 동의보감에서는 몸의 진기를 든든히 하여 신수와 심화가 잘 오르내리게 하고 오장을 보강하며 노화를 방지하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최고의 보약으로 공진단을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내에 한방탕전실 시설을 갖추고 면역력 강화, 항암치료에 효과를 높여주는 한약과 자재공진단, 경옥고를 식약청 인증과 제약회사 자체 검사를 거친 신뢰할 수 있는 한약재료를 사용하여 정성을 다해 제조합니다.

자재공진단

최고급 등급의 사향이 일반 공진단의 2배로 들어가서 공진단의 해울, 행기의 효능, 보기혈 효능이 극대화되며, 면역력과 기억력을 좋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하는 효능을 가진 원지, 석창포 등의 약재를 추가하여 집중력 강화, 뇌기능 활성화 등의 효능으로 치매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재요양병원 한방약첩 세트

피로회복제 (1팩 · 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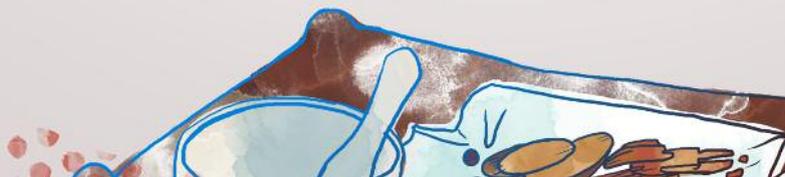
녹용, 인삼, 백출, 황기 등 원기회복에 탁월한 10여 가지 한약제를 사용하여 정성껏 다려 현대인의 고질병인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피로에 효과적이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몸살 / 기침 / 콧물 감기약 (1팩 · 3,000원)

환절기면 찾아오는 바이러스성 질환 감기!! 면역력을 강화하여 미리 예방하고 감기에 걸렸을 때 체내의 기운을 보강하여 빠른 시일에 감기가 나올 수 있도록 백작약, 숙지황, 황기, 당귀, 천궁, 감호, 생강, 대조, 인삼 등 20여가지 재료를 넣어 감기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감기약으로는 몸살/기침 감기약, 콧물 감기약으로 나뉘며 증상에 따라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충명탕 (3팩 · 4,000원)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건망, 치매 등의 병증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사회 활동의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일반 직장인들과 학생들의 기억력 감퇴와 학업능률을 저하 및 중년여성의 건망증과 노인들의 치매 예방 및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수험생의 학습증진에도 좋습니다.



요양보호사교육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 |

교육기간 5월 23일(월) ~ 6월 20일(월) 주간반 : 160시간
실습기간 6월 21일(화) ~ 7월 8일(금) : 80시간
교육대상 신규(실업자 환급 과정) 교육정원 : 15명
교육비 65만원
제출서류 교육지원서, 증명사진 2매, 기본증명서
접수방법 방문, 우편, 전화, 이메일
교육접수 우)44908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전화 052-255-8521~3 팩스 052-264-0209
이메일 mahabodhi@daum.net



제 2회 청소년
울산 팝·댄스 경연대회

꽃보다 10대



5월 14일 (토) 오후 5시~ 7시 30분 부처님오신날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야외무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참가대상_ 학교 동아리 및 팀(학교장 추천) 참가신청_ www.mahaedu.org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UCC 동영상 예선 접수마감_ 2016년 5월 2일 시상 및 부상_ 본선 10개 팀 전원



Soul Mother 프로그램

(영적돌봄을 위한 기도)

수강생모집

임상현장에서 영적돌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임상기도', '임종의식', '바르도'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수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간 매월 1째주 일요일(총 10회)

1회차 2016년 4월 03일 (일요일) 14:00~20:00 / 6시간

교육대상 사부대중

참가비 연 75만원, 수련복,교재비 별도

교육정원 30명

접수마감 3월 18일(금)까지

제출서류 교육지원서, 사진(3x4) 1매

접수방법 우편, 전화, 홈페이지, 방문, 이메일

문의 T. 052)255-8522 E. mahabodhi@daum.net

44908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재)정토사관자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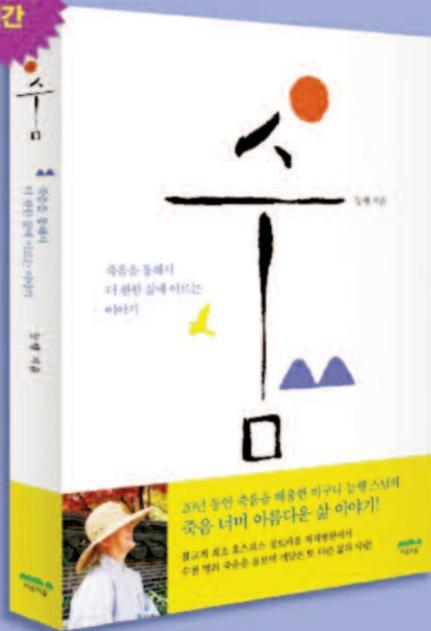
마하보디교육원

Mahabodhi Meditation Training Institute

죽음이 묻고 삶이 답하다!

살아간다는 건 죽어간다는 말과 다르지 않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어떻게 살 것인가와 다르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죽음을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화제의
신간



숨

죽음을 통해서
더 환한 삶에 이르는 이야기

능행 지음 / 264페이지 / 가격 13,800원



불교계 최초로 호스피스 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죽음을 배운 비구니 능행 스님의 20년 세월의 총집산!

실제 죽음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죽음을 맞닥뜨리며 보고 듣고 느낀 삶과 죽음에 대한 에피소드는 물론, 그동안 사유하고 성찰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담았다. 죽음을 생각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경험해보자.

마음이 쉬어가는 이야기 마음의술

정토마을 계간지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후원자님, 감사드립니다.
연 4회 만나보실 수 있었던 정토마을 계간지를 올해부터 연 3회(2월, 6월, 10월)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토마을 소식지는 정토마을 홈페이지(www.jungtoh.org)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